



## 바이든,尹대통령에 친서…“열린 마음으로 ‘인플레법’ 협의”

### 대통령실 브리핑…“한미동맹 강화·양국 공동목표 달성”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 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김은혜 흥보수석은 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

선을 그었다.

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

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의에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협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 초등생 유인 반복 60대 검거…김근식 출소 임박 불안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초등생 4명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을 여러차례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하교 중이던 B양에게 접근해 “띠리와 봐라”고 말했고, 겁에 질린 B양은 도망친 뒤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날 낮 A씨의 주거지 근처 서구지역 공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서구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해 초등학생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진 뒤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0년대 중반에 발생한 김근식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이달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철민 기자

### Photo News



은행 고객 찾아가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광주 동부경찰서는 은행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사례와 수법 등을 안내하는 예방 홍보활동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학서파출소 관계자들이 관내 광주은행을 방문해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광주 동부경찰 제공)

## 전월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썼다

### 재계약 세입자 20%는 ‘임대료 5% 제한’ 권리 포기

서울에서 전·월세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천161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전·월세 중 신규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다.

기준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천 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로 집계됐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

상 오른 거래는 19.5%로 나타났다.

월별로 따져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20.9%로 올라왔고 올해 7월 23.7%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 김은성 기자

SAMSUNG

##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야, 개천절 맞아 민생 강조, “홍익인간 정신 살려야”

공세도 이어가…“당리당략 위한 국정훼방” vs “외교참사 감추기 매달려”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여야는 또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으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널리 이롭게 한다는 흥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 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략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뒤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 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개천절을 맞

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흥익인간’의 정신을 되새

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지난 8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이 해군의 수중무인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 군, 정찰용 무인잠수정 2030년대 전력화

국방부, 국감자료…“ADD, 핵심기술 개발 중”

군 당국이 정찰용 무인잠수정을 2030년대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이 2030년대에 전력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용 무인잠수정은 2019년 5월에 제32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 신규소요가 결정된 전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정보함 등에서 운용하기 위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립하고 관련 기술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찰용 무인잠수정 예산은 2023~2027년 중기계획에 연구개발(R&D) 예산 약 5억원이 반영됐다. 세부 예산 계획은 선행 연구를 완료한 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군은 정찰용에 이어 전투용 무인잠수정 전력화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정찰용 무인잠수정 개발 이후 전투용 무인잠수정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준용 기자

## 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단순 매도뿐 아니라 환전까지 마쳐야 세제 혜택

250만원 공제 확대·22% 세율 한시 인하안 거론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려는 것이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 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

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제도 그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일례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서학개미 A씨가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천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1천만원에서 250만 원을 제한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이 서학개미들의 양도차익의 실현을 막는 허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학개미들 사이에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기는 경우 매도 주식 수를 줄여 올해는 250만원까지만 양도 차익이 나오도록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추구하는 경우

이때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을 도울 방안이다.

정부는 다만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양도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려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외환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민경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협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천342건의 신청 가운데 4천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기타 17.5% 등이었다.

/ 이승호 기자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

사통팔달 교통 通!  
공감백배 소통 通!

# 오랜만에 잡는 할머니 손…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방문객,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면회 가능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없이 외출·외박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까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코로나

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추석 연휴 요양병원 등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가립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접촉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단계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은 자



비대면 면회 후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하는 요양병원 입원자와 가족

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 박춘배 기자

서울외고, 서울 두번째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4년간 12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최근 서울의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로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임원 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체제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암고가 첫 모델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외고는 4년간 공공 과제를 수행하고 교육청에서는 연간 3억 원(환경개선비 2억5천만원, 특색사업비 5천만원)씩 총 1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신 서울시교육청 추천으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2분의 1 미만, 감사 1명을 선임하는 등 공영형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인사관리 공공성 확대, 법인과 학교 재정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짓고 “부담금 내라”…대법 “위법”

LH,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주민친화시설, 하수도 부담금 산정서 제외”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그 비용을 택지 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

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 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하수처리장의 종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 시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박소희 기자

## 서울 노후 공공어린이집 100곳, 내년 저탄소 건물로 탈바꿈

2026년까지 총 498곳  
'그린리모델링'…968억원 투입



서울시 저탄소건물

서울시는 내년에 공공어린이집 100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이다.

그린리모델링은 고성능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냉·난방 시설과 친환경 환기시스템 등을 설치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그린리모델링에 2026년까지 총 968억원을 투입, 총 498개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지역 온실

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린이집의 실내환경을 더욱 편안하게 바꾼다는 목표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공공어린이집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57곳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0만t

68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729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공사를 끝낸 광진구 군자어린이집, 마포구 샘물어린이집,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등 3곳에서 모두 30% 이상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군자어린이집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 절감율 58.4%를 기록했다.

시는 연말까지 공공어린이집 54곳을 저탄소 건물로 추가 전환한다.

/ 김유정 기자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포항시

##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文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범국민 저항운동도 제안…尹이 휘두르는 칼날,尹 발등에 꽂힐 것”



민주당, 감사원의 표적감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

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만간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우므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했다.

/ 송원기 기자

野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무시한 채 해외 출장”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임종재 총장을 항의 방문,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복, 김영호,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일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핵심 증인으로 체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을 죄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종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체택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오는 10일 귀국하고, 지난 2일 출국한 장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을 비롯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체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역시 장기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표절 논문의 유타고로 국민대·숙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이 국감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 정찬양 기자

## 尹대통령 “어르신 존경과 예우, 의무이자 번영의 시작”

노인의날 페이스북 메시지…“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 약속

지상승세(32.3%→32.6%→34.4%→34.6%)을 보여왔지만, 9월 4주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3%포인트↑)에서 상승했지만, 부정 평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을 비롯해 인천·경기(5.8%포인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김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를 일궈온 땀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의 현장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국 수호의 현장, 가난을 벗어나게 한 산업 발전의 현

장,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인재를 키워낸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도 모두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다”고 기렸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증액한 점을 거

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신 어르신들께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손해원 기자

#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의 만남!

2022. 10. 12.(수) - 16.(일)

젓갈김치담그기, 고구마맛깔체험, 젓갈특가할인판매전 등

공식유튜브

강경맛깔젓TV

2022  
강경  
젓갈축제  
Gangjeong  
Salted Seafood  
Festival



• 주최



• 주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www.nonsan.go.kr/eggfestival/](http://www.nonsan.go.kr/eggfestival/)

# 내 삶의 새 반경

# The new Kia Ray



##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24시간) 080-200-2000 | [www.kia.com](http://www.kia.com)

# 대법관 공백 한달…국회 인준 중단에 대법원 ‘냉가슴’

## 오석준 후보자 인준 중단으로 ‘미쓰비시 자산 매각’ 등 결론 기약없어

‘대법관 공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요 사건이 산적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춰 섰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이 지난달 5일 퇴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결정은 기약이 없어졌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같은 민감한 사건도 그중 하나이다.

대법관 공백은 사회적 쟁점에 가치의 준거를 최종으로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소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통상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열리는 소부 합의에서 대법관 1명이 100여건씩 사건을 처리한다. 김 전 대법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가 소속됐던 3부에 남은 재판관 3명 각자가 주심인 사건은 판결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김 전 대법관의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임자가 배당받아야 했을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추가로 배분돼야 해 가뜩이나 사건 적체가 심한 대법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 1명이 한해 맡는 주심 사건은 평균 3천665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2명이 나눠 맡을 사건이 11명에게 가니 전체적으로 적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백이 장기화하면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올스톱’됐다는 것은 더 큰 제다. 전원합의체는 사안이 까다롭고 대법관의 의견이 갈려 소부에서 다

를 수 없을 때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

해야 할 때 소집되고, 통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고를 내린다.

판결 하나하나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소부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해 과반 의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다. 현행법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찬성·반대 숫자가 같아지는 ‘가부동수’(可否同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재판관 숫자가 홀수여야 하는데 공백이 있는 지금은 대법원장까지 총 12명이 되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의 표결

결과가 ‘11대1’처럼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 나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은 서로 토론·설득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새 대법관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합의를 시작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대법관이 ‘총 12명’ 구조를 상정하고 상호 토론·설득을 하는 것과 ‘13명’을 전제로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은 7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원래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심리만 진행했다. 대법원 내부에선 앞으로도 새 대법관이 올 때까지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공전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전원합의체 감’이지만 아직 회부조차 안 된 사건의 향방이다.

정부·여당·재계의 반발로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넘겨져 현행 노동법 적용 기준이 바뀐다면 굳이 새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단체행동권이 보다 명확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노승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8월 14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지역 복구사업 현장점검

이상민 장관은 구례군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상황을 방문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사업 등 구례읍, 문척면을 비롯한 5

개 읍·면 지역에 걸친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피해 재발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복구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 재해복구사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섬진강의 지류 하천인 마산천을 방문해 당시 제방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 뒤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 민수호 기자

## 권익위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등 정부 개방형직위 22개 공모

인사혁신처는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2022년도 10월 정부 개방형 직위 지원 서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모하는 자리는 총 22개다.

국방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고위 공무원단 10개 직위와 과장급 12개 직위를 공모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민권익위 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상임위원,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등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권유희 기자

## 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 ‘계엄 검토 문건’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은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 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

위수령 계엄선포·계엄수행 등 4가지  
21개 항목 총 67페이지

- ‘계엄 해제’ 관련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계획
- 국회의원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 방송사·신문사·통신사 요원 편성해 보도통제
- 계엄 성공 위한 보안유지·신속한 선포 적시

(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 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군 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

/ 김철기 기자

지금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감기약?**

판피린·판·피·린

판피린 Q  
감기 조심하세요

10년 연속 판매 1위 감기약

#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Q

# 금융공기업 지분매각 예정 기업 10여곳

산은 등 5개 기관 혁신계획안 정부 제출…보유자산 정리계획 보고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수년 내 보유지분 매각 방침을 세운 출자기업이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그룹이 인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042660]을 제외하고서도 HMM, 금호타이어 [073240], 한화생명 [088350] 등이 적지 않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대상 기업으로 꼽힌다.

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5개 금융공기업이 2년 이내

매각 착수 대상으로 보고한 출자기업은 총 12개사(계열회사 및 페이퍼컴퍼니, 극소수 지분 제외)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핵심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의 정비 계획을 포함한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

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

다. 기관별로 보면 채권단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이 출자지분 보유 회사가 가장 많았다.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등 7개사는 2016년 산은이 혁신 방안을 수립하면서 일찌감치 지분매각 방침을 세운 곳이다.

산은 보유지분 중 가장 덩치가 큰 대우조선은 최근 한화그룹과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투자 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한화그룹에 인수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회사의 경영개선 및 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채권단 공동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된 뒤에도 우리은행(7.8%), 산은(7.4%) 등 채권단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산은 지분율 2.6%), KG스틸 [016380](옛 동부제철·1.5%), 서진캠(8.1%), 환영철강공업(14.3%) 등 4개사는 잔여 지분을 대주주

협의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GM(17.0%)은 2016년 혁신방안 매각대상 7개사에 포함됐지만, 2018년 정부

와 GM 간 합의에 따라 2028년까지 지분매각이 보류된 사례다.

이들 7개사 외에는 KDB생명보험(92.7%)이 최우선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KDB생명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대주주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지난 4월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HMM[011200](20.7%)의 경우 산은은 '매각 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보고에서 지분 매각대상 리스트에 올리진 않았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증시 여건에 따라 산은 등이 지분매각 추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로 신보의 경우 HMM 보유 지분(5.0%)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보고해 산은과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신보 역시 매각 계획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 [180640](10.6%) 지분에 대해선 "향후 운송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이라는 출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 신재일 기자

## 삼성SDI,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

삼성SDI[006400]가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추진한다. 삼성SDI는 3일 이런 내용의 '친환경경영'을 선언하고, 세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삼성SDI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와 토론토, 말레이시아 등 해외 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삼성SDI는 최근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삼성SDI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등 LNG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SDI는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배터리의 제조 / 정영택 기자

전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 전기차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배터리 핵심 원소재 재활용 비중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삼성SDI는 라인 공정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배터리의 핵심 원소재를 회수하고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체계(Closed-loop)를 2025년까지 전 세계 생산 거점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 5월 연구소 내 '리사이클 연구 랩(Lab)'을 신설해 친환경 소재 회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밖에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 "토스, 보험에 이용자 정보 팔아" vs "법적문제·부당이득 없어"

황운하 측 "토스, 설계사들에 이용자 정보 판 뒤에 사후 고지"

토스 운영사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없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유상판매한 뒤에 뒤늦게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고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사전고지 없이 운영하다

논란이 일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했다고 황 의원 측은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숙 황 의원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천만 원을 기록했다.

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범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뜯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이 대상이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토스 로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 건당 6만9천 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 배수빈 기자

KT[030200]는 '와이파이 6E'를 적용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와이파이 6'를 확장한 표준 규격으로, 2.4GHz·5GHz 주파수에 6GHz 대역(5GHz~7.2GHz)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파수 간섭이 덜해 와이파이 6 공유기 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와이파이 6E 공유기 임대료는 3년 약정 기준 월 7천700 원이다.

내년 3월 31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강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가정 내 와이파이 접속 단말 증가와 고품질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준비했다"면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채민서 기자



# 창덕궁에서 융릉까지…8~9일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서울·수원·화성시 공동개최…

2천700명·말 345필 참여

서울시는 수원시·화성시와 8~9일 역사문화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연다고 밝혔다.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총 59.2km 중 43.5km 구간에서 1795년(을묘년) 정조대왕 원행(圓幸)을 재현하는 행사다. 원행은 조선 시대 왕이 부모님 소에 행차하는 일을 말한다.

서울에서는 200명이 말 20필을 이끌고 강북구간(창덕궁~종로3가~세종대로사거리)과 강남구간(노들섬~금천구청 앞 사거리~시흥5동 주민센터 앞)으로 나눠 행차한다. 이어 수원·화성에서 총 2천500명이 말 325필을 끌고 안양~군포~의왕~수원~화성까지 행차한다.

특히 노들섬에서 금천구청 앞 사거리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렬

로 이동할 때는 ‘미디어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을 재현한다. 정조대왕 행렬이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를

연결해 만든 다리)를 LED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구현했다. 노들섬 1층 내부에

서 잔디광장으로 통하는 중앙통로에 길이 25m, 높이 4m 규모로 설치된다.

행사 당일 노들섬에서는 축제대 공연, 격쟁(백성들이 징을 치며 왕에게 호소하

는) 상황극, 대동놀이, 정재(전통무용)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 행궁광장, 융릉 등 주요 거점별로도 창덕궁 출궁 의식,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을 올린 ‘미음다반’, 잡귀를 쫓는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인 ‘나례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당일 서울·수원·화성 시내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 내 통제 구간은 ▲8일 오전 3시~오전 11시 30분 울곡로·돈화문로·종로 일부 구간 ▲7~8일 0시~오후 10시 금천구 대우당약국~시흥5동 주민센터 앞 200m 전체 ▲7~8일 오후 4시 40분~오후 5시 42분 금천구청 앞 삼거리~시흥5동 주민센터 앞 일부 구간이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수원시, 화성시 문화재단, 2022 정조효문화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종호 기자

고양 창릉천,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 경기도 심사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경기 고양시 창릉천의 통합하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최근 환경부가 공모 발표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고양시 창릉천이 1차 관문인 경기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은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시설 조성에 전당 300억 원~4천억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공모를 신청했으며, 고양시 창릉천과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이 함께 선정됐다.

오는 12월 환경부의 최종 선정에서 창릉천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2천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고양시 명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 서정미 기자

## 해경,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다친 관광객 등 병원 이송



인천해양경찰서는 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관광객과 주민을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포리 인근 도로에서 관광객인 40대 남성 A씨가 사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전복사고를 당하면서 어깨 부위를 다쳤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데려온 후 A씨를 인천시 중구 해경 전용부두로 옮겼고, 소방당국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에는 옹진군 문간도에서 주민인 4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2m 높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 부위를 다쳤다. 해경은 영흥피출소 구조조과 경비함정을 투입해 B씨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2명은 부상 정도가 심적도에 급파해 A씨를 인천시 중구 해경에 있는 농지 4천932㎡를 지분 조개기

/ 장수경 기자

## 농지 매입하고도 농사짓지 않는 ‘가짜 제주 농부’ 극성

주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2천600㎡를 매입했다.

A씨 등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다. 하지만 처음부터 농사를 짓을 의사가 없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세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에 사는 C씨 등 3명과 경북에 거주하는 D씨는 투기나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2018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농지 4천932㎡를 지분 조개기

외지인에 공직자까지…끊이지 않는 ‘제주 농지 사랑’

### 7년 간 처분 의무 부과된 토지만 여의도 5.6배

은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았다.

강 제주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소유한 농지를 이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5천 409필지에 1천621.6㏊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가 8천568필지에 846㏊, 서귀

포시가 6천841필지에 775.6㏊다.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과 다른 이에 게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까지 받고도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 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제주지역에서 7년간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34억7천300만원(제주시 26억7천800만원, 서귀포시 7억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희정 기자



## 벤처가 자란다 대한민국이 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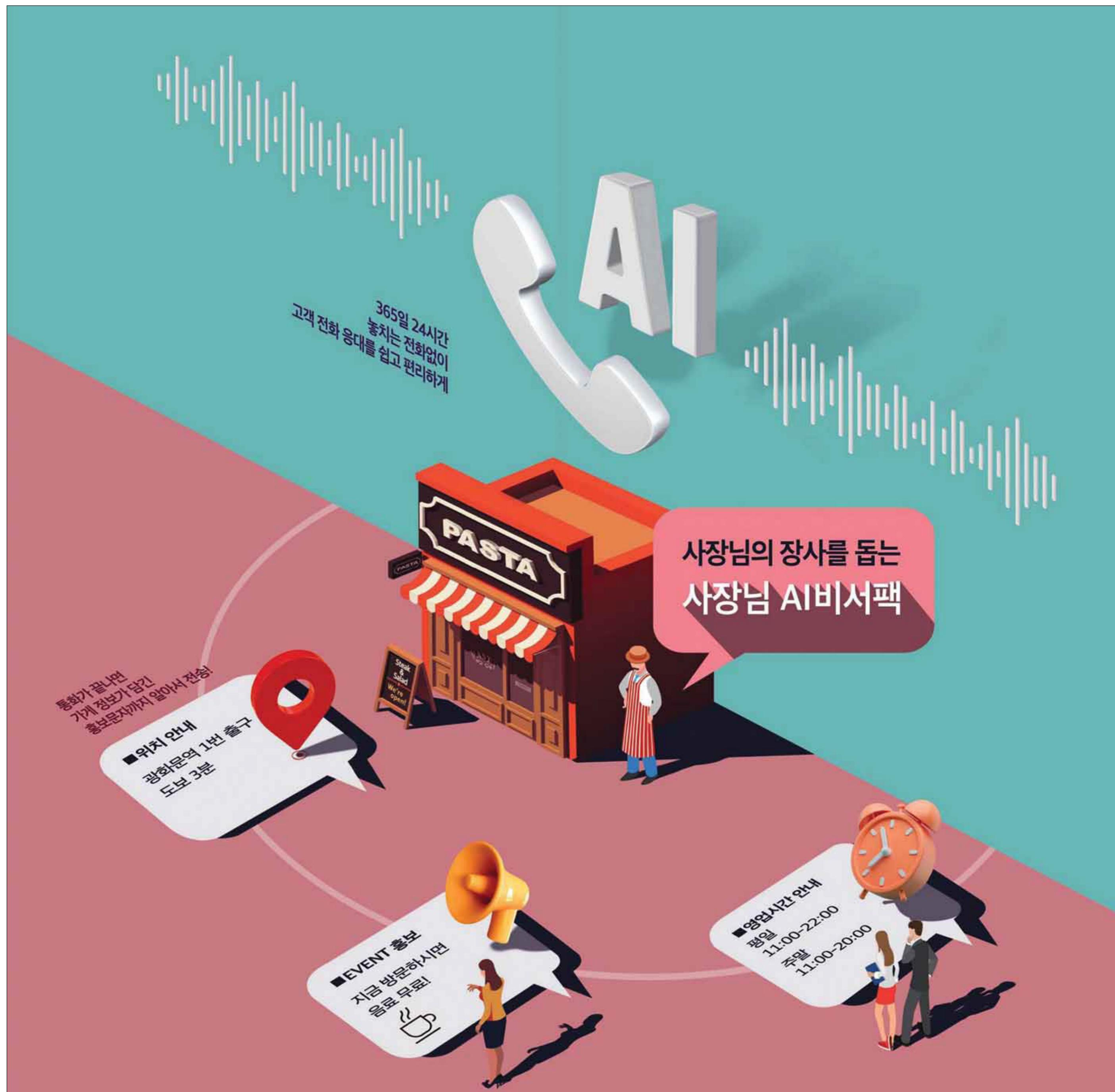
세상 밖으로 나온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고,  
내일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성장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KDB벤처금융

- 벤처기술금융 :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트업 투자
- 스케일업금융 : 대규모 투·융자를 통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 넥스트라운드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운영

한국산업은행 혼법률사인 실무일 제2021-11-01(2021.11.26-2022.11.25)  
※ 신경운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상황에 관여 종분의 질병 및 의무가 있으며, 거래 한 그러한 질병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기관은 민법과 동일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경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를 적용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도상 상환의 경우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황설명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를 존수하였습니다.  
※ 자체한 내용은 기관은 암법집에 분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DB산업은행



예약·문의 전화도  
어려웠던 홍보도  
모두 다 편한 일로

[사장님 AI 비서팩]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요!

고객 전화 한 통, 한 통이 소중한 사장님을 대신해  
AI가 전화응대를 도와주고 가게정보 안내와 홍보까지 해주니까

사장님의 장사가 더욱 편해지도록  
KT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KT 사장님 AI 비서팩'을 만나보세요!

이용문의 100번 | kt.com

DIGICO KT

## 러 하바롭스크주서 징집된 예비군 수천명 중 절반 기준 미충족

귀가 조처 후 업무 담당 군사위원 해임…러시아서 무분별 징집 불만 잇따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동원한 예비군 수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잘못 징집된 것으로 드러나 업무 담당 군사위원이 해임됐다고 3일 인데르파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하일 데그탸료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예비군 동원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하바롭스크주 군사위원 유리 라이코가 직위에서 해임됐다”고 밝혔다.

데그탸료프 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하바롭스크주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징집됐다. 그러나 징집센터에 도착한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예비군 동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짐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귀가 조처된 예비군 가운데는 장



징집센터에 모인 러시아 예비역들

애를 앓는 딸을 허로 키우는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그탸료프 주지사는 “이번 해임 조처가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부분 동원령 발령 후 징집 대상을 병사 및 부사관으로 전역한 35 세 이하 예비군, 초급 장교로 전역한 50세 이하 예비군, 고급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55세 이하 예비군 등으로 한정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1급 장애가 있는 예비군, 16세 이하 자녀를 4명 이상 둔 예비군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노소프 마가단주 주지사도 지역에서 예비군을 잘못 징집하는 사례가 잇따라자 동부 군관구 지휘부에 업무 담당 군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인데르파스 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예비군 징집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사례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 한만수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시다 내각 출범 1년…지지율 급락 위기 극복할까

3개월새 지지율 20%p 급락  
통일교·아베 국장·고물가 원인

4일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작년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며 장기 집권의 벌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후 자민당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의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내각과 집권 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 각종 여론조사서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역시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포인트 오른 50%로 처음으로 절반에 도달했다.

/ 연지민 기자

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5%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고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 기준으로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4%포인트 오른 46%로,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을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역시 아사히 여론조사 기준 내각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3%포인트 오른 50%로 처음으로 절반에 도달했다.

## 인플레이션에 ‘1+1’ 할인행사 사라지는 美 마트

### “공급망 문제 해결 전까진 할인 어려울 듯”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로 미국 마트에서 익숙한 풍경인 ‘1+1’ 등 할인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나 21짜리 탄산음료를 1달러가 채 안 되는 가격인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 를 찾а보는 게 쉽지 않게 됐다.

리서치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떨어졌다.

2019년 3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된 식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올 3분기엔 20.6%만이 할인행사 제품에 포함됐다.

WSJ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에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제조업체가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 할인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식료품점 프레시 마켓 플레이스 총괄 매니저 코스타 드로소스는 “최근

한 스프 제조사가 10% 할인 제의를 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스프 맷별로 1천200개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개월간 요구르트와 우유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다.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력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미 중서부 식료품 체인점 B&R 스토어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샌더슨 농장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매주 닭고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샌더스 농장이 지난 2년간 지원금을 끊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할인행사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크게 줄었다.

WSJ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나희 기자

## 대만군, 화색지대 충돌 대비한 對중국 전파전 강화

대만 국방부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화색지대 충돌에 대비한 대(對)중국 전파전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군사정보국(MIB)은 2023년 1억 대만달러(약 45억 2천만원)를 투입해 신형 단파안테나 기지

를 구축, ‘대북 방송’과 같은 형태의 대중국 방송 강화에 나선다.

대만군 측은 이번 신형 단파안테나를 이용한 방송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만의 방송 콘텐츠 전송 외에 선전 전파 및 정보 작전 수행과 연락 임무 등을 새롭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위승연 기자



99센트에 판매하는 눈에 익은 할인 행사 를 찾а보는 게 쉽지 않게 됐다.

리서치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료품 할인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떨어졌다.

미 중서부 식료품 체인점 B&R 스토어

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샌더슨 농장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매주 닭고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했지만, 샌더스 농장이 지난 2년간 지원금을 끊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할인행사가 줄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

도 크게 줄었다.

WSJ은 식품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나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 주변 1km 은행나무길로 유명한 경주 통일전…관광명소 만든다



경주 통일전 가을 풍경

### 경북도, 경주시서 관리·운영권 넘겨받아 장기계획 수립

경북도가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인 경주 통일전을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명소로 만든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활용도가 떨어진 통일전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주시에서 관리권을 넘겨받는다.

도는 단순 관람 콘텐츠만으로는 통일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 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

통일전은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 조성 계획에 따라 1977년에 조성돼 1987년부터 경주시가 도에서 관리권을 받아 36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 차원의 관람 유도로 학



생과 일반인 관람·참배가 많았으나 현재는 관심과 활용이 예전의 명성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학술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 호국 시설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통일전이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조경 정원, 화랑정, 연못 등으로 관람

객이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면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에는 경북산림환경연구소와 조성 이 끝나가는 지방 정원, 화랑교육원, 은행나무길, 남산 등이 있다.

통일전 앞 은행나무길은 직선으로 1km 가량 뻗어있는 아름다운 길로 이름나 있으며 남산은 노천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경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이 찾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전은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사업비 7억3천900만 원을 들여 경주 남산동 8만2천645㎡에 건립됐다.

본전과 회랑, 화랑정, 기념비, 무명용사비, 사적비 등이 있다. 또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황룡사 9층 탑 조영도, 삼국통일 영광도 등 17점의 기록화가 전시돼 있다.

매년 10월에는 이곳에서 통일 서원제를 봉행한다. 현재 단순한 관람 콘텐츠로 관심에서 멀어져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무료 관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6만4천여 명이 다녀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호국정신은 나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사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며 “통일전에 깃든 삼국통일의 뜻을 이어 대한민국 대통합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호국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고광복 기자



### 가을축제 한창인 마산로봇랜드

#### 10월 2일 하루 방문객 1만명 넘어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신비한 로봇랜드’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로봇세일페스타’, ‘드론쇼’, ‘로봇마차 퍼레이드’ 등 로봇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로봇 콘텐츠들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는 이 밖에도 쾌속열차, 스카이타워, 회전그네, 별자리여행 등 다양한 놀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다.

/ 김채원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영화제 대비 특별 교통관리 추진

부산경찰청은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람객 인파가 많이 몰리는 5일 개막식과 14일 폐막식 저녁 시간대 영화의전당 주변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통제 시간대와 구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영화의전당과 KNN 사

이 보조간선도로인 센텀서로 500m 구간

/ 백혜련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금융파트너

**BRAVE** [용감하게] 금융플랫폼 KB Pay

**INSIGHT** [동학력있게] 미래를 위한 글로벌 진출

**GREAT** [위대하게] ESG경영 실천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

**카드를 넘어 금융플랫폼으로**

**BIG MOVEMENT**

증정금지면 신의원 제220805-02589-ADP(2022.8.5 기준)

**\* KB 국민카드**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이 변함없이 그린 세상**

우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성장 앞에 함께가불을 때  
한계가시려진다는 것을  
그크기는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NH농협금융은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  
변치 않는 상생의 가치로  
푸르른 미래를 그려 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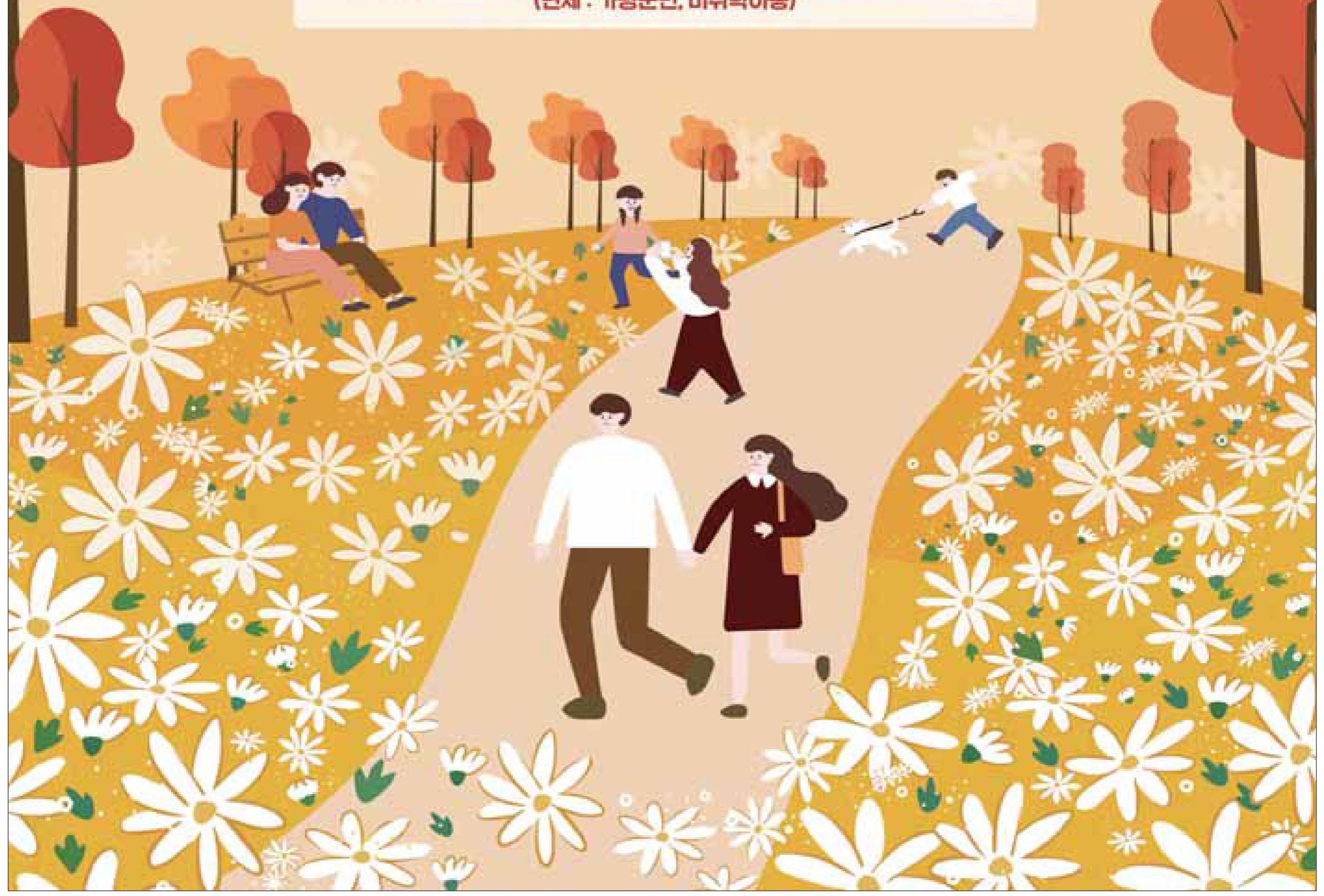


# 2022 자라섬 남도 꽃정원

2022.9.18(일) ~ 10.16(일)

입장 09:00 ~ 18:00 퇴장 21:00

외부 관광객은 5,000원권 지역상품권을 교환 후 입장 가능  
(면제 : 가평군민, 미취학아동)





## 블랙핑크 2집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4위…2주 연속 ‘톱 5’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톱 5'에 머물며 흥행 가도를 이어갔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 앨범은 2주차 순위에서 전 주보다 3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 유지에 성공했다.

'본 핑크'의 판매량은 전주보다 60% 하락한 4만장 상당으로 집계됐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디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지난주 블랙핑크는 이 앨범을 10만2천 장가량 팔아치우며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K팝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을 찍은 것은 방탄소년단(BTS), 슈퍼엠, 스트레이 키즈에 이어 네 번째였다. 블랙핑크는 이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1위도 기록해 세계 애니메이션 차트로 불리는 영미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아시아 최초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 김민경 기자

## 배우 박은빈, 美 크리틱스초이스 주관 행사서 라이징 스타상

배우 박은빈이 미국비평가협회(CCA) 주관 행사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미국비평가협회는 지난 3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TV 창립 기념 행사(Asian Pacific Cinema & Television, 이하 'APCT')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박은빈은 이번 행사에서 라이징 스타(Rising Star Award for TV) 수상자로 선정됐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디



렉터 어워드(Director Award), 드라마 '오징어 게임' 활동력 감독은 TV부문 디렉터 어워드(Director Award for TV)를 수상했다.

APCT는 올 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영화, 방송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 등을 주관하는 미국비평가협회에서 올해 새롭게 개최했다.

APCT는 내달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페어몬트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 BTS·이문세·앤 마리·페퍼톤스 가을 맞아 야외 공연 잇따라

50인 이상 공연 등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올가을 '노마스크'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가요계에서는 때마침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이달 굽직한 야외 콘서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음악 팬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오는 15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옛 투 캠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연다.

이 공연은 지난 3월 서울 잠실주경기장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국내 콘서트로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다.

이 콘서트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5만명 안팎의 관객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기로 매진 사례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인 만큼,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 전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다. 공연 좌석은 당연히 전석 매진된 상태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무대는 별도 예매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백하영 기자

## '공조2' 600만 관객 돌파 올해 한국 영화 3번째

분기준 영화 공조2의 관객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개봉 26일만이다.

올해 한국영화에서는 '범죄도시2', '한산: 용의출현'에 이어 세번째다. '공조2'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 흥행 4위에 올라섰다. 올여름 최고 흥행작인 '탑건: 매버릭'이 개봉 30일째 600만 관객을 넘어선 것보다 빠른 속도라고 CJ ENM이 전했다.

공조2는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뉴페이스인 해외파 FBI 요원 '잭'(다니엘 헤니) 등의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다. / 정영택 기자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이하 공조2)이 2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CJ ENM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

## 휴 잭맨, 영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로 '귀환'

호주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이 영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로 복귀한다.

데드풀 시리즈의 주연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잭맨이 2024년 9월 개봉하는 '데드풀3'에서 울버린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잭맨은 2000년 '엑스맨'에서 인기 히어로 캐릭터 울버린을 연기해 세계적인 스

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17년 동안 9편의 영화에서 이 캐릭터를 전담했고, 2017년 영화 '로건'을 끝으로 울버린 역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잭맨은 이번에 '데드풀3'로 팬들에게 울버린의 귀환을 알리게 됐다.

연예체 버라이어티는 울버린 역할의 잭맨이 데드풀3에서 어떤 설정으로 등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강동호 기자

## 쏟아지는 여행 예능…절친부터 가족까지 '찰떡 호흡' 출연진

코로나19로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여행 예능이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료나 선배로 같이 방송 활동을 했거나 가족인 출연자들이 '찰떡' 케미(호흡)를 자랑하며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날 첫선을 보인 TV조선 '여행의 맛'은 30년간 동료로 지낸 코미디언들의 조

합을 내세웠다.

대회를 좋아하는 개그맨들의 모임인 '조동아리' 멤버 지석진, 김용만, 김수용과 지난 3월 '놀면 뭐하니'에 게스트로 나와 MC 유재석의 혼을 빼놓는 입담으로 화제를 모은 이경실, 박미선, 조혜련이 출연한다.

'여행의 맛' 연출을 맡은 김진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분들(출연진)이 한 방송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

를 듣고, 모여서 방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출연자들은 '조동아리' 팀과 '센 언니' 팀으로 나눠 직접 해외여행 코스를 짜고 곳곳을 누빈다. 이들은 첫 여행지 괌에서 쉴 새 없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말꼬리를 잡으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3일 첫선을 보인 '이젠 날 따라와'에는 '아빠 어디가'에 출연했던 이종혁-준수, 윤민수-후 부자와 '슈퍼밴이 돌아왔다'의 추성훈-사랑, 이동국-재시 부녀가 나온다. / 한애민 기자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인쇄인	한현숙	E-mail	mbc0300@gmail.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정원이라면, 만족할 만두 하지

HOME:ings  
홈링스



deep  
SOAP  
DAESANG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AI의 미래가 궁금해

AI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더 멀리 보며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LG의 다양한 AI교육프로그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LG